

실크로드와 고원(高原)*

김 채 수**

(e-mail : chaesu@korea.ac.kr)

目 次

1. 머리말
 2. 기존의 실크로드의 세 간선의 지리적 위치와 그 형성 경위
 3. 오아시스로의 기반과 고원(高原)
 4. 고원로와 산성두이(三星堆) 유물
 5. 고원로와 고대중국의 문화와 민족의 형성
 6. 맺으며
-

1. 머리말

본 연구는 실크로드가 유라시아 대륙에 산재해 있는 고원(高原)들을 디딤돌로 해서 형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규명해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잊혀진 실크로드를 발견해 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수수께끼 상태로 남아있는 연구대상들의 고고학적, 역사적 배경을 규명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글로벌시대로 들어와서 전 지구적 시각으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어떠한 민족이나 문화권적 차원의 시각을 버리고 전 지구적 규모의 시각, 즉 글로벌적 시각을 취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찰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의 그러한 입장은 우리로 하여금 대상들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멀리 고찰해 갈 수 있게 만든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물을 시공간적으로 더 멀리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다 많은 다른 것들과의 비교를 가능케한다는 면에서 그것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교내 특별 연구비에 의함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우리가 그 동안 양분시켜 고찰해오던 동서의 문화적 특징과 그 동서 문화의 교류를 가능케 한 교통로들에 대한 재검토는 이 시점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작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과 서의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것들의 교류를 가능케 했던 동서의 교통로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 고찰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동서의 교통로에 대한 연구는 실크로드학(Silkroadology)의 형태를 취해 행해져 나왔다.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 차원에서 행해지기 시작된 것은 20세기로 들어와서였다.¹⁾ 당시 그것은 『중국과 시리아 간의 고대 실크로드』(Die alten Seidenstrassen zwischen China and Syrien, 1910)의 저자인 독일의 동양학자 알베르트 헤르만(Albert Hermann) 등과 같은 서양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²⁾ 그런데 그들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은 『서역문명사개론』(1931) 등의 저자 하네다 도오루(羽田亨, 1882~1955) 등과 같은 일본의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에 의해 일제의 만주침략(1931) 이후에 출발되었다.

그 후 그것은 20세기 중반으로 들어와 동서 문화의 교류에 대해 관심이 깊었던 『동서 문화의 교류』(1951)의 저자인 몽골연구자 고바야시 다카시로(小林高四郎, 1905~1987) 등에 의해 행해져 나왔다. 그러다가 1960년대로 들어와 『실크로드를 가다』(1960)의 히라노 이치로(平野一郎) 등에 의해 실크로드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행해지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실크로드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나가사와 가즈토시(長沢和俊)가 실크로드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실크로드 답사기』(1967)에서부터였다. 한국에서의 실크로드 연구는 1990년대 초의 글로벌 시대로 들어와서부터 시작되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국립경주박물관이 『경주와 실크로드』를 출판해내고, 나가사와 가즈토시의 제자 민병훈이 나가사와의 저서 『동서문화의 교류, 신 실크로드론』(1979)을 번역·출판해낸 1991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1986년 쓰촨성(四川省)의 청두(成都)인근에서 「산싱두이유적지」(三星堆遗迹地)가 발굴되어 그곳에서 나온 유물들의 주인을 탐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90년대로 들어와 신강인민출판사(新疆人民出版社)의 기획에 의해 「실크로드 연구총서」 간행이 행해지는 분위

1) ‘실크로드’(Silkroad)라는 말이 학술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독일의 지리학자 뢰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 1833~1905)에 의해서였다. 그는 그의 저서 China I (Berlin, 1877)에서 투르키스탄과 차이나의 비단구역을 매개하던 중앙아시아의 교통로를 가리켜 자이텐슈트라센(Seidenstrassen: 실크로드)이라 했다. (나가사와 가즈토시 『東西文化의 交流』(민병훈 역, 민족문화사, 1991), p.14 참고)

2) 나가사와 가즈토시(1991) p.14

기 속에서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 나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남 실크로드」(西南絲綢之路)에 대한 고찰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존의 유럽, 일본, 한국의 실크로드 연구자들은 실크로드를 동과 서의 문화적 교류의 통로라 규정하고 그 간선(幹線)을 세 개로 파악하였다. 우선 하나는 북방 유라시아의 초원(스텝)지대를 동서로 횡단하는 초원로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오아시스로이다. 나머지 하나는 인도해를 동서로 통과하는 해로(海路)이다. 중국의 실크로드 연구자들은 이 세 간선 이외에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윈난성(雲南省) 쿤밍(昆明)과 미얀마를 경유해 인도에 이르는 서남실크로드의 존재를 제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논자는 첫째로 본 연구를 통해 그들 세 간선들 이외에 또 다른 간선 고원로(高原路)의 존재를 주창하고자 한다. 논자가 주창하고자 하는 실크로드 간선으로서의 고원로는 세 종류이다. 우선 하나는 중앙아시아 파미르고원과 티베트고원을 동서로 관통하는 동서 고원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파미르고원으로부터 아랍선고원과 오르도스고원을 통해 황토고원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또 파미르고원으로부터 아리고원, 티베트고원(청장고원), 천서고원, 운귀고원 등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 아시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아시아 남북고원로이다. 알타이산맥 서쪽의 카자흐고원으로부터 남쪽의 파미르고원과 남쪽의 이란고원을 경유해 아라비아해 또는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는 길이다. 나머지 하나는 동아시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동아시아 남북고원로이다. 몽골고원, 황토고원, 천서고원, 운귀고원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길을 말한다.

두번째로 본 연구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앙을 관통하는 실크로드의 간선 오아시스로가 사실은 고원로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다. 세번째로 위에서 제시한 고원로들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불가사의한 상태로 남아있는 청두(成都)의 산싱두이(三星堆) 유물들의 고고학적, 역사적 배경을 규명해내고, 그것과 더불어 양사오(仰韶) 신석기문화 유적지에서 출토된 채색토기의 서방전래설의 문제, 서남실크로드의 존재여부의 문제, 쓰촨성(四川省)·윈난성(雲南省) 등의 서남지역에 생존해 있는 소수민족의 기원의 문제 등에 대한 논자의 입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기존의 실크로드의 세 간선의 지리적 위치와 그 형성 경위

지금까지의 동서의 실크로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실크로드는 유라시아 북방의

초원(스텝)로, 중앙의 오아시스로, 남방의 해로라고 하는 세 간선들로 되어 있다.

실크로드의 원래의 의미는 중국의 비단이 중국의 한·당 등의 수도, 장안(長安)으로부터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 지역을 가로질러 로마에 전달되는 길을 가리켰다. 그런데 서방의 크리스티교 문화권과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과의 문화적 교류가 그 길을 통해 행해졌다는 의미에서 실크로드는 동서 문화의 교통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나오게 되었다. 실크로드가 이러한 의미로 쓰이게 되자, 그것이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와의 교류들을 가능케 한 길들의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렇다면 서방이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리키고, 또 동방이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리키는 것인가? 서방이란 말은 오리엔트(Orient)지방의 번역어인 동방(東方)이란 말의 대립어이다. 그런데 오리엔트 지방이란 로마인들이 이탈리아반도에서 바라다봤을 때 해가 뜨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편 로마시대 이전의 고대 그리스인의 경우는 로마인들보다 빨리 자신들이 처해있는 발칸반도에서 바라다봤을 때 해가 뜨는 지역을 아시아(Asia)라 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이 말했던 ‘아시아’나 ‘동방’이라는 말들은, 서구문명의 기초를 구축했던 고대그리스와 로마지역으로 봤을 때 ‘해가 뜨는’ 지역, 즉 에게해나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가리켰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들은 에게해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아나톨리아지방 이동과 지중해 동안의 이동을 뜻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이후 서구인들에게서의 서방이란 우랄산맥, 흑해, 에게해, 지중해의 이서지방, 즉 지금의 유럽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리켜왔고, 동방이란 그들 지역을 경계로 그 이동지역을 동방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근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말에서의 유럽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서방이고 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동방이라는 것이다.

‘동서 문화의 교류’라는 점에서의 ‘동서’의 의미는 이상의 의미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나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초기의 실크로드 연구자들에게서의 ‘동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서의 그것은 유라시아에서의 유럽지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내에서의 ‘동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시아지역을 동서로 양분했을 때, 그것은 아시아 중앙의 파미르고원을 경계로 그 동쪽을 동아시아로, 서쪽을 서아시아로 양분되어오다가, 최근에는 유라시아의 북부와 남부를 제외한 아시아의 중부를 서아시아·중앙아시아·동아시아로 3등분해 이해하고 있다. 서아시아란 서남아시아라고도 하는데, 아나톨리아·메소포타미아·지중해 동안·이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아라비아반도 등의 지역을 가리킨다. 중앙아시아란 작게는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동(東)투르크িস탄이라 불리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와 서(西)투르크িস탄으로 불리는 투르크메니스

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및 카자흐스탄의 남부를 합친 지역을 가리킨다. 사실상 실크로드 연구는 이들 세 지역, 즉 서아시아·중앙아시아·동아시아의 지역들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동서를 잇는 교통로에 대한 관심으로까지로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는 그곳의 지형적·문화적 등의 특징들로 인해 한무제(漢武帝, 141~87, BC) 이전까지만 해도 원활히 이루어져오지 못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실크로드의 개념은 서아시아의 끝에 위치해있는 동로마제국의 수도 비잔티움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중앙아시아·동아시아 세계를 지배해가던 중국의 수도 장안에 이르는 길, 즉 아시아대륙 차원에서의 동서 문화의 교통로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되어 유라시아대륙 차원의 동서 문화의 교통로의 의미를 확대해서 나왔던 것이다.

현재 실크로드는 선고대 이래 유라시아대륙과 아프리카대륙의 전체 차원의 문화적 교류가 행해진 통로라는 의미로 개념화되어 있다. 그것은 우선 시간적으로 ‘고대의 로마시대부터’라는 입장을 폐기하고 ‘선고대부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그것은 공간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중부지역만을 한정시켜 생각했던 관점을 버리고, 유라시아 대륙 남부와 북부까지를 포함시켜 파악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뿐 아니라, 유라시아대륙 남부의 교통로까지를 포함시켜 파악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취해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로를 고찰해 볼 때, 당연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에 행해졌던 동서의 문화적 교류까지가 고려되어 북방의 초원로와 남방의 해로가 실크로드의 간선들로 파악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북방의 초원로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유적들의 발견을 통해 확인된다. 인류가 기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후기 구석기시대(35000년~12000년전)이었는데, 그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너스상 등이 유럽의 서단 프랑스지역으로부터 아시아의 북부 바이칼 호 근방까지 동서로 산재되어 있다. 또 그것은 중국 북방의 대표적 신석기 문화로 꼽히는 홍산문화(紅山文化, 기원전 3500년)의 유적, 일본의 북부지역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³⁾ 즐문토기도 그 초원길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고, 또한 기원전 5~4세기의 것으로 알려진 알타이 산맥의 북쪽 기슭에 위치해있는 과거리크 고분으로부터의 출토품들인 유럽풍의 기마상(騎馬像)이 그려진 벽걸이, 스키타이문양이 있는 말의 재갈, 진(秦)나라 형식의 거울 등도 그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초원로는 구석기시대에서는 구석기인들의 장거리 이동로였고, 신석기시대에는 유목민들의 이동로였으며, 금속기시대로 들어와서는 유목기마민족의 교통로였다. 그런데 이 경우의 초원이

3)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출판사. p.63

란 원래는 시베리아에서 중앙아시아지역에 걸쳐 펼쳐져있는 단초(短草)로 덮인 스텝(Steppe)지대를 말한다. 이곳은 관목(灌木)이외의 수목이 자라지 않으며, 주로 유목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 북방의 초원로가 관목으로 덮인 벌판에 생긴 길이었다고 한다면, 중앙의 오아시스로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징검다리로서 해서 생긴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아시스길의 지리적 위치를 보다 높은 시야에서 조명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유라시아대륙의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고원들을 징검다리로서 해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원이란 일반적으로 2000미터 이상의 해발고도에 수평지층으로 구성되어 연속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가리킨다. 이 오아시스를 형성하는 고원들은 대개 티베트·몽골·파미르·이란고원 등과 같이 대산맥들로 둘러싸인 산간고원들이다. 끝으로 유라시아대륙의 남해로는 짧게는 페르시아 만이나 지중해로부터 홍해를 거쳐 아라비아해, 뱅갈만,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거쳐 한국, 일본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나가사와 가즈토시(長沢和俊)는 그의 저서 『신 실크로드론·東西文化의 交流』에서 초원로는 고대에, 오아시스로는 고대후기부터 중세에 걸쳐, 남해로는 근세 이후에 동서 문화의 교류에 적극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은 고대 이전에도 동서 문화의 교류에 적극 이용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 그는 예컨대 스텝로는 고대 초기에 금(金)과 동을 전달하였고, 오아시스로는 채문토기, 옥(玉) 등을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래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현생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인 신인(新人), 즉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15~25만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해 4~5만년 전에 와서 전지구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논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출현한 호모사피엔스가 유라시아대륙으로 퍼져나갔을 때도 그들은 상기의 세 간선을 통해 유라시아대륙의 서방에서 동방으로 퍼져나갔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도말 아시아 10개국의 인간개념연구회는 「사이언스」(SCIENCE)지를 통해 선사시대 동아시아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남해로(the southern coastal route)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⁵⁾ 그들의 이러한 연구는 5만 년 전 경에 인류가 아시아의 북방·중앙·남방이라고 하는 세 루트를 통해서 동아시아에 들어왔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어떤 확실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중국의 동아시아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아시아, 중

4) 나가사와 가즈토시 『東西文化의 交流』(민병훈 역, 민족문화사, 1991). p.27

5) SCIENCE, 11 Dec.2009, VOL 326, p.1541-1545

양아시아, 북부아시아 지역의 인간들까지를 자료로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 내야한다는 입장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3. 오아시스로의 기반과 고원 (高原)

오아시스로는 로마를 출발지로 봤을 때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출발지로 봤을 때의 루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종착지는 두 루트 다 장안(長安)이다. 전자는 로마로부터 출발해 비잔티움, 아나톨리아, 이란 북단의 타브리츠, 테헤란, 파미르고원의 발흐, 소룩, 돈황을 통해 장안에 이르는 길이다. 후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 지중해 동안지역, 바그다드, 파시르고원의 발흐, 소룩, 돈황을 통해 장안에 이르는 길이다. 전자의 출발지는 지중해 북안(北岸)이고 후자의 경우는 지중해 남안(南岸)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두 노선은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파미르고원의 발흐에 와서 서로 겹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오아시스로는 앞서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고원지대들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어 나온 것으로 고찰된다. 전자의 경우는 흑해 남안의 아나톨리아 고원, 흑해 동남 해안의 아래쪽에 위치한 카프카스산맥 서남단의 카프카스고원과 동남단의 아르메니아고원,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동쪽의 아랍선(阿拉善)고원, 오르도스고원, 황토(黃土)고원 등으로 이어지는 고원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후자의 경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바그다드로 이어진 길은 이란고원을 디딤돌로 해서 파미르고원의 발흐로 이어져, 중앙아시아의 동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라시아 중앙을 가로지르는 오아시스로는 각 곳에 산재해있는 고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어 나왔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취해 생각해 볼 때, 오아시스로가 형성되어 나왔다고 하는 고대 후기의 이전인 신석기시대에는 어떤 한 고원지대에서 거주해가던 인류가 인접해 있는 고원지대로 이동해 간다든가 혹은 인근 고원지역의 인간들과 물물교환을 행해가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교통로가 존재했었음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고원은 그 지대를 형성하는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이 거대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티베트지역의 티베트고원이나 아리고원의 남측은 히말라야산맥으로 되어 있고, 아르메니아고원의 북측은 자그로스산맥으로, 아랍선고원의 북측과 몽골고원의 서쪽은 알타이산맥으로, 카프카스고원의 북측은 카프카스산맥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원지대의 거주자들은 산맥과 고원 사이의 강이나 평지 혹은 산길 등을 따라 이웃 고원으로 이동해가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고원과 고원

을 잇는 길을 고원 로라고 이름 붙여 볼 수 있는 것이다.

오아시스로가 동서간의 무역이 행해지기 시작되었던 고대 후기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철기시대 이후 무역상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된 길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고원 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인근지역으로부터 형성된 청동기 문화가 동서로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나온 것으로서, 인류나 어떤 민족 집단의 이동으로 파악되어질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원로와 오아시스로는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원지대의 남북 쪽이 거대한 산맥들로 이루어져 있음에 반해 그것의 동서는 사막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는 고원들을 디딤돌들로 해서 교통로가 형성되어 나왔고, 철기시대로 들어와서는 오아시스를 디딤돌로 해서 교통로가 형성되어 나왔다는 입장을 취해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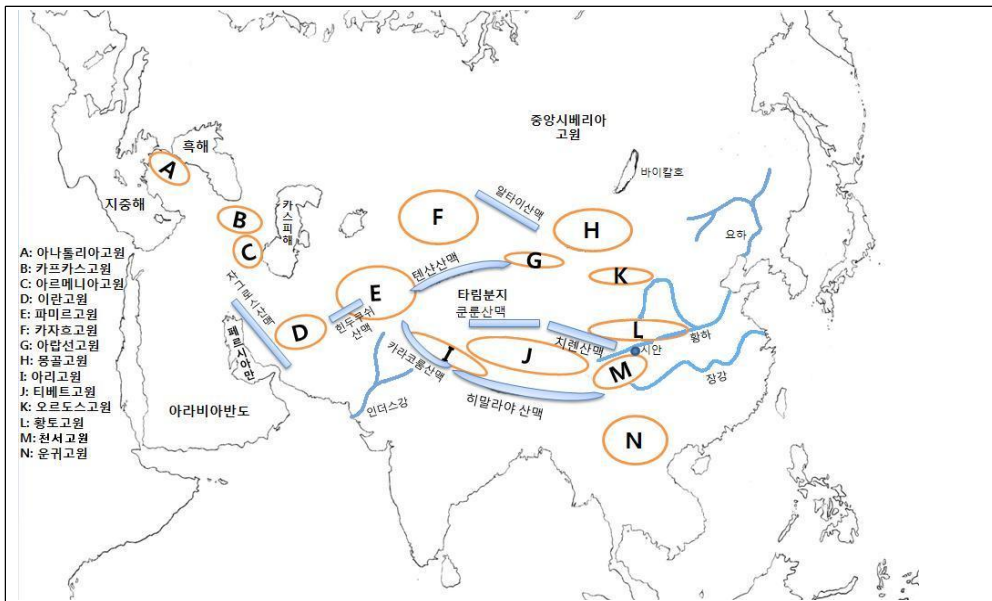
선사시대 유라시아대륙에서의 어떤 인류나 혹은 어떤 민족 집단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하나는 기본적으로 태양이 지는 서쪽에서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행해졌었다. 그러한 현상은 우선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 이동함에 따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차원의 자연 현상들과의 관련 속에서 행해진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륙이동설 내지 진화론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그러한 회전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남극 쪽에 위치해 있던 아프리카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이동해 올라와 그 서남쪽과 충돌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이 남극의 한대지방에서 열대지방으로 이동해 올라오자, 대륙내의 온도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자 대륙내의 동물들로서는 자신들에게 적합한 기후를 찾아 집단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동물들의 두뇌가 발달해서 원류(猿類)동물에서 원인류(猿人類)라고 하는 영장류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대륙에서 출현한 영장류가 아프리카대륙과 연결된 유라시아대륙의 서남단을 통해 유라시아대륙으로 올라와 그곳에서 동쪽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류 집단은 돌을 도구로 사용해 생존해가던 시대의 전반기, 즉 구석기 시대에서는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과 목축 등을 통해 생활해갔던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이동해 다니면서 수렵과 채취 등을 통해 생활해갔다. 이 경우 그 인류 집단의 이동은 지구의 자전 운동, 초원, 산, 바다 등과 같은 자연환경, 기후의 변화 등과 같은 자연현상 등에 의해 그 속도와 방향 등이 결정되었다. 이 경우, 인류 집단이 수렵과 채취 등을 통해 이동생활을 행해 가는데 초원이나 사막 속의 오아시스 등은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할 수 있다. 인류가 수렵과 채취 활동을 통해 이동생활을 하기에 최적의 자연환경은 해안(海岸)지대가 산

악지대였음에 틀림없었다. 그러한 곳에는 물속에서 잡아먹을 수 있고, 나무 숲 속에서 따먹을 수 있는 먹 거리들을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석기시대의 후반기로 들어와 인류는 어떠한 지역에 정착해 농경과 목축을 통해 생활해 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고고인류학자들은 그러한 지역을 강어귀나 해변 등으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앞에서 논자는 그러한 지역들뿐만 아니라 고원지대(高原地帶)도 인류 집단이 정착해 농경과 목축을 행해가기에 적합한 지대라는 입장을 제시하는 바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원지대는 가장자리가 산들로 이루어졌고, 그 중앙은 호수로 되어있으며, 그 호수와 산 사이에는 초원이 있다. 또 고원지대의 기후는 건조해 보리, 밀 등과 같은 곡식의 재배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고원지대는 인류 집단이 수렵과 채취 등을 통해 이동생활을 해가기에 적합한 지대이기도 하고 정착생활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해봤을 때 논자는 고대 후기 이후에 형성되어 나온 오아시스로는 고원지대와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고원로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어 나왔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림1〉 고원지도



위쪽에 제시된 〈고원지도〉가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오아시스로를 주축을 이루는 실크로드가 고원과 고원을 연결하는 고원로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상정되는 고원로의 존재를 자료로 해서 우

리에게 잊혀진 새로운 실크로드를 찾아낼 수가 있다 는 입장이 취해진다. 이러한 입장을 취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세 종류의 실크로드의 간선이 상정된다. 우선 하나는 파미르고원에서 아랍선고원과 오르도스고원을 통해 황토고원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또는 파미르고원으로부터 히말라야산맥의 서쪽 상단의 아리(阿里)고원, 티베트고원(청장고원), 천서(川西)고원을 경유해 운귀(云貴)고원에 이르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유라시아 북방의 동쪽에 위치한 중앙시베리아고원에서 몽골고원, 오르도스고원, 황토고원, 천서고원을 경유해 운귀고원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남북 고원 로이다. 나머지 하나는 알타이산맥 서쪽의 카자흐고원에서 아래의 파미르고원을 경유해 이란고원에 이르는 중앙아시아의 남북 고원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굴된 여러 유물들을 근거로 해서 이들 세 종류의 고원로를 통해 구석기시대의 인류 집단과 민족이동이 있었다는 입장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고원로와 산싱두이(三星堆) 유물

우리가 이상과 같은 세 종류의 고원로가 존재했었음을 인정해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역사적 유물들의 존립 배경을 파악해볼 수 있다.

1986년 쓰촨성(四川省)의 청두(成都)근방의 광한시(廣漢市)에서 산싱두이유적지가 발견되고 그곳으로부터 기원전 2000년경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옥석(玉石)과 청동기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그런데 그 유적지는 고대 촉국(古代蜀國)의 도성(都城)의 하나로서 그 유적지의 인근으로부터 1929년부터 1990년대 까지 70여년 간에 걸쳐 수많은 유물들이 인근으로부터 발굴되어 나왔다. 그 산싱두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 중에는 청동인상(靑銅人像)들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현재 고고학자들은 그 청동기문명의 기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그들은 그것의 기원이 황하지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장강(長江)유역에서 유래된 것인지, 서남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떤 지역의 어떤 문명으로부터 유래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싱두이로부터 출토된 유물들의 연구자들은 어째서 그 청동기문명의 기원이 인접해있는 고대 인도문명이나 고대 황하문명과 연결되어있다는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그 유물들이 그 인접 문명권과 관련

되어있다는 그렇다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앞에서 논자가 제시한 고원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고대 인도문명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결되어있는 파미르고원으로부터 아리고원, 청장고원, 천서고원을 경유해 쓰촨(四川)의 청두(成都)에 이르는 실크로드의 존재를 상정해볼 수 있다. 파미르고원으로부터 아리고원, 청장고원, 천서고원을 경유해 사천의 성도에 이르는 동서 고원로의 존재에 대한 상정은 다음과 같은 고고학적 유적들과 역사적 사실들이 그 근거들로 될 수 있다.

이들 티베트 서쪽의 아리고원, 중앙의 청장고원, 동쪽의 천서고원 등은 티베트고원(西藏高原)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질학적 연대는 대략 4000 만년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당시 인도대륙과 아시아대륙과의 맹렬한 충돌에 의해 생겨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고원지역에 인류가 활동하기 시작된 것은 구석기시대 말기의 10000년 전으로 고찰된다. 이 티베트의 남부, 북부, 동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석기시대에서 구석기시대말기의 석기가 발견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창두카뤄(昌都卡若)유적지, 라사취궁(拉萨曲贡)유적지, 등 50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 신석기시대의 문화는 장북세석기(藏北細石器) 문화로 특징지어진다. 이 신석기 문화를 일으킨 민족은 이 지역에서 출현한 장족(藏族)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장족은 일명 토번족(吐蕃族)이라고 한다. 이 토번족(吐蕃族)에서의 ‘토’(吐)는 장족어로 ‘고원’(高原)의 음역(音譯)이고, ‘번’(蕃)은 장족인이 자기지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봤을 때, 토번족이란 고원지방인이란 뜻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최초로 티베트 고원을 통일시킨 토번왕조(633~864)의 성립까지는 장구한 시간의 역사가 있었다. 그동안 고원의 원주민들의 문명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단계들을 밟아 변천해 나왔다. 카뤄(卡若)문화(the Karub Culture는 기원전 3000~2500년 전의 것이다. 그것은 서남과 서북지방과의 교류흔적을 보여주고 카뤄인이 농경과 수렵을 하며 생존해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⁷⁾

라사(Lhrsa) 근처의 신석기시대의 유적 취궁유적(the Qugong Ruins)은 야룽(雅砻, Yarlung)족이 그들의 근거지를 나사로 옮기기 이전인 기원전2000년경으로 고찰된다. 현재 고고학자들은 티베트고원지역으로부터 발견된 최고(最古)의 무덤은 기원전 2000년경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⁸⁾

티베트 인들은 고지대에서의 유목과 숲이 있는 저지대 계곡에서의 농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해 생활해 왔다. 티베트의 문명은 티베트 서북지방의 아리

6) 琼那·诺布旺典(2007) 『唐卡中的西藏史』唐卡中的西藏史』, 陕西师范大学出版社. p. 18

7) Zhang Xiaoming, *Tibetan Stories*, China intercontinental Press, 2004. p.16

8) 霍巍·李永宪(2004) 『西藏考古与艺术』, 四川人民出版社. p.12

(阿里)고원 위쪽에 위치한 장중(象雄,Zhangzhung)과 티베트 남동에 위치한 야룽강 계곡(the Yarlung River Valley)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되어 나온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티베트인의 토착종교인 번교(蕃教)는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나와 티베트고원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티베트인의 언어와 민족이 통일되어 나왔다.

장중지역은 티베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성립되어 나온 것으로 그 본거지는 히말라야산맥 서단 북부의 아리고원(阿里高原)으로 알려져 있다. 장중 지역에 장중왕국이 세워진 것은 기원전4세기 전후였고, 그 무렵에 티베트 중부 지역에는 쑤피여국(蘇毗女国)이, 그 동부에는 야룽 방국(雅砻邦国) 등이 성립되었다.

학계에서는 장중왕국이 토착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유목민족에 의해 세워졌고 또 서쪽으로부터 유입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립되었다는 학설이 제기되었다. 장중 왕족은 독특한 문자를 갖고 있었고, 장기간 쑤피 여국(蘇毗女国)으로 통치해 간다. 그러나 7세기에 와서 티베트고원에서 출현한 토번왕국에 의해 8세기경에 정복되었다. 학계에서는 토착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또 서쪽으로부터 유입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립되었다는 그 학설이 제기되었다.⁹⁾ 티베트 중부의 쑤피 여국(蘇毗女国)은 옛 강(羌)계 민족의 일파로 모권(母權)국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부의 야룽 방국(雅砻邦国)은 야룽강 계곡(雅砻河谷)을 배경으로 해서 “천신의 아들” 네츠잔푸(聂墀赞普 Nyatri Tsampo)에 의해 건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33년 쑹잔간부(松赞干布)는 야룽 방국(雅砻邦国)을 기초로 해서 티베트고원의 전체를 통일시키고 토번왕조(吐蕃王朝)를 세웠던 것이다.

이와 같이 티베트의 서북단 파미르고원으로부터 아리고원, 티베트고원, 천서고원이 이르는 고원로(高原路)가 통과하는 지역은 구석기시대 이래 인류가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산성두이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들의 제작자들이 이 고원로를 따라서 서역으로부터 티베트 지역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산성두이문화는 기원전 2800년경에 성립되어 나와 사천분지(四川盆地)에서 촉(蜀)이 성립되어 나온 기원전 850년경까지 번성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산성두이문화는 고촉국(古蜀国)문화로 볼 수 있다. 기원전3000년을 전후해 사천분지는 양대의 민족이 잡거하고 있었다. 하나는 동남부의 묘(苗)족과 다른 하나는 서북부의 강(羌)족이었다. 강족의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선조는 서북의 고원 출신으로 되어있다. 그들은 서로 투쟁해가다가 어

9) 『唐卡中的西藏史』 p.30

는 시점에 이르러, 찬층(蚕叢)이라 부르는 강인의 수령을 왕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다. 강인은 그 때부터 대량의 청동종목면(靑銅縱目面)을 주조(鑄造)해왔던 것이다. (『華陽國志蜀志』) 그런데 대표적 산성두이 유물은 기원전 2000년경의 것으로 고찰되는 청동기들이고, 또 그 청동기 유물의 특징은 청동인상(靑銅人像)이며, 그 청동인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목면(縱目面)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서남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 중에는 이족(彝族)이 있는데, 이 이족은 한때 서남지역에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족의 선조가 티베트의 서북쪽으로 유입해 들어와 강들을 타고 서남지역으로 내려왔던 강족이었다고 하는 것이다¹⁰⁾.

이문전적(彝文典籍), 예컨대 『창세사시』(創世史詩), 『독모의 전설』(篤慕的伝説), 『매갈』(梅葛) 등에 의하면 이족의 선조에 해당하는 족속들 중에 종목인(縱目人)들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보인다고 한다. 운남지역의 소수민족 중에는 티베트어계의 일파인 이어(彝語)로부터 분파해 나온 언어를 사용하는 나씨족(納西族)이 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나씨족도 고대 강인(羌人)의 후예로 파악하고 있다. 이 나씨족 연구자들은 그 나씨족이 일으킨 문화를 동파문화(東巴文化)라 말하고 있는데 그 문화는 갑골문자 보다 한층 더 원시단계의 상형문자로 파악되는 동파 문자를 기초로 해서 성립되어 나온 것으로 고찰된다. 그런데, 동파문화연구의 대가인 거아간(戈阿干)은 그의 저서 『실크로드 문명과 동파문화』에서 동파문자와 이집트의 상형문자의 영향관계를 언급하고 있다.¹¹⁾ 또 그는 동서에서 쓰촨성(四川省) 광한시의 삼서퇴 유적지로부터 출토된 유물들의 특징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의 특징과 관련시켜 논하면서, 쓰촨(四川)에서 윈난(雲南), 버마, 인도를 경유해서 아시아를 나가는 서남실크로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다. ¹²⁾

그러나 이 분야의 역사학자 양푸취엔(楊福泉)은 그의 저서 『나씨족과 장족 역사관계 연구』(『納西族與藏族歷史關係研究』, 民族出版社, 2005)에서 나씨족의 선조가 거주하는 지역에 장족(藏族)의 조상으로 알려진 북방의 강인(羌人)이 일으킨 석관장(石棺葬)문화가 분포되어 있다 것을 근거로 해서 나씨족과 장족과의 관계가 긴밀했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서남실크로드만으로는 섬성퇴 유적지로부터 출토된 유물들이 어떤 인간집단들에 의해 제작 만들어 되었는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중국측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해서 산성

10) 巴且日火 「論三星堆文明與彝族先民的淵源關係」, 《中華文化論壇》 2005年第1期

11) 戈阿干(2006) 『絲路文明與東巴文化』, 中國文史出版社. p.12-13

12) 『絲路文明與東巴文化』, pp.8~9

두이 유물과 서남실크로드와의 관계를 고찰해 봤을 때 티베트 고원지역의 장족이 중국의 서남지역인 쓰촨(四川)과 윈난(云南)지역으로 이주해가서 그곳에서 서남실크로드를 통해 고대 이집트, 서아시아, 인도 문명을 받아들여 산싱두이 유물을 만들어 냈다는 입장을 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논자가 여기에서 산싱두이 유물과 관련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파미르고원으로부터 티베트지역의 여러 고원 들을 경유해 중국의 쓰촨(四川)지역과 천서(川西)와 윈난(云南)지역의 운귀(云貴)고원에 이르는 고원로, 몽골고원에서 황토고원, 천서고원을 경유해 운귀고원에 이르는 티베트 동부의 남북실크로드, 카자흐고원으로부터 파미르고원을 경유해 인도에 이르는 고원로들 등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문제는 더 간단히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티베트지역의 장족의 선조였던 강인의 후예들이 상기의 고원로들을 통해 서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지역 등의 문명들을 받아들여 산싱두이 유물들과 같은 것들을 산출해 낼수 있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청두(成都)의 산싱두이 유적지는 현재 장강(長江)문화의 발원지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산싱두이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번성한 문화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상대(商代)(1766~1122, BC)와 서주대(西周代)(1122~770, BC)였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쓰촨(四川)의 청두(成都)지역은 고촉국(古蜀國)이 지배해왔던 것으로 되어 있다. 고촉국이란 기원전 4세기말까지 지금의 쓰촨(四川)지역인 촉(蜀)에 파(巴)와 공존해 있다가 진(秦)에 의해 멸망한 나라를 가리킨다. 촉국(蜀國)이란 삼국시대의 한 국가로서 한나라시대의 한제국을 계승해 보려는 의도 하에서 명명된 한(漢, 221~263)을 가리킨다. 사실상 유방(劉邦)에 의해 206년 한제국이 성립되었는데, 그것의 기초가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은 진의 전국 통일과정에서 멸망했던 쓰촨(四川)지역의 고촉국과 파국(巴國)이 중국화의 길을 걷기 시작함으로써였다 할 수 있다.

촉(蜀)의 이름이 역사 서적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서』(尚書)의 목서(牧誓)편이다. 그 나라는 중원지역과는 다른 문화를 지녀왔었는데, 주(周)의 무(武)왕의 요구에 따라 은(殷)을 공격했던 이민족(異民族)이었다. 그러나 그 후 그 나라는 춘추시대를 통해서 중원지역과는 거의 관계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파촉지역에는 구석기시대부터 토착민들이 생존해 와서 상·주대에 와서는 토착민들에 의해 파(巴)나 촉(蜀) 등과 같은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전국시대(403~221, BC)의 말기에 와서는 중원지방과의 교류가 행해짐에 따라 비로소 그 지역에서 파촉씨라는 성(姓)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파촉국을 세운 파와 촉씨는 어떤 족들인가? 파촉씨는 현재 우리에게

게 서역 오랑캐로 알려진 저강(氐羌)의 후예들이며, 또 그들은 찬츨씨(蚕叢氏)를 왕으로 받들었던 민족으로 고찰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찬츨씨를 이족(彝族)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중국 서남지역에는 파촉씨 이외에 이족과 나씨족(納西族)이 살고 있다. 쓰촨(四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이족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지니고 있고, 중국서부로부터 출현한 고대 저강씨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그들은 서북의 고대 강인(羌人)이 서남으로 남하해 서남의 토착인과 융합해 형성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자연과 조상신을 자신들의 신앙적 대상으로 삼아가고 있다. 또 현재 윈난성(雲南省)의 리장시(麗江市)에서 주거해가는 나씨족도 서북 허황(河湟)지역으로부터 남진한 강인(羌人)이 토착민과 융합해 형성된 민족으로 고찰되고 있다. 그들은 자연숭배를 중핵으로 해서 형성된 동파교(東巴教)를 신봉해 가고 있고, 동파상형문자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찰해 봤을 때 청두(成都)지역의 산상두이 유물을 제작했던 고촉인(古蜀人)은 티베트의 서북지역으로부터 남하한 강족의 후예들이었고, 또 고촉인과 동일한 선조로부터 출현한 이족과 나씨족 등의 선조였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그런데 이 강족은 중원지역의 농경민족에 대한 서용목양인(西戎牧羊人)의 유목민족을 지칭하는 말이다. 강족은 쿤룬(昆崙)산맥 동쪽, 서안(西安)지역 남쪽에 위치한 치렌(祁連)산맥의 남쪽, 바옌카라(巴顏喀拉)산맥의 북동쪽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칭하이(青海)지역을 중심으로 생존해온 장족(티베트족)계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장족계 유목민은 파미르고원 동북쪽에 있는 천산(天山)산맥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변을 통해 청해지역으로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파미르고원 남동쪽의 카라코람 산맥을 타고 티베트고원으로 들어와 칭하이(青海)지역으로 들어가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인가? 이 질문은 장족계의 유목민이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로 또는 그 구도(舊道)를 타고 동아시아의 칭하이(青海)지방에 들어 왔는가, 아니면 티베트의 고원로를 타고 그 지역에 들어가 정착하게 된 것인가의 질문과 동일한 문제이다. 논자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에 의거해 고대 후기 말 오아시스로가 형성되어 나오기 이전에는 서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청동기문화를 취한 서아시아의 유목민이 티베트의 고원로를 통해 칭하이(青海)지방에 들어왔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고대 말 이후 오아시스로가 형성되어 나오면서 티베트지역의 동서 고원로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입장도 취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으로 오아시스로가 성립됨에 따라 그것을 통해 서의 문화가 동아시아로 전파되어 그것이 그 전에 형성되어 있던 동아시아의 남북 고원로를 통해 서남의 쓰촨(四川)지역으로 남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족은 어느 시점에서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과 티베트고원을 경유해 중원지역까지 진출했던 것인가?

중국의 한(漢)민족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신화는 삼황오제(三皇五帝)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삼황은 『상서』(尚書)의 「대전」(大傳)에 의하면 수인씨(燧人氏)·복희씨(伏羲氏)·신농씨(神農氏)로 되어 있고, 『사기』(史記)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의하면 황제(黃帝)·전욱(顓頊)·제곡(帝嚳)·요(堯)·순(舜)으로 되어 있다. 수인씨는 불 만드는 기술을, 복희씨는 사냥기술을, 신농씨는 농경술을 각각 창안한 자들로 되어 있다. 오제(五帝)중의 최초의 인물 황제(黃帝)는 무력으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 시키고 문자, 역법, 궁실, 의상, 화폐, 수레 등의 물문제도를 창안해낸 최초의 군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³⁾ 그렇다면 “황제”(黃帝)란 말은 어디로부터 유래된 것인가? 우선 그것은 “황천상제”(皇天上帝)의 줄인 말 “황제”(皇帝) 또는 “천제”(天帝)를 기초로 해서 성립된 말이다. 오행(五行)사상에 의하면 중국은 쿤룬(昆崙)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각각 청제(靑帝)·백제(白帝)·적제(赤帝)·흑제(黑帝)가 다스리고 중앙을 황제(黃帝)가 다스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사상이 일반화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황제(皇帝) 또는 천제(天帝)가 황제(黃帝)로 전환되어 나왔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그런데 쿤룬산 근방의 지역을 다스리던 황제(黃帝)는 기원전 2700년경 이전에 동쪽으로 진출하여 황하중상류 지역에 정착해 기원전 2700년경에는 당시 황하 중하류지에 정착해 있던 신농씨 염제를 물리치고, 구려족(九黎族)의 우두머리였던 츠유(蚩尤)와 싸워 이긴 뒤 신농씨 염제를 대신해 연맹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내용이 사기(史記)의 「오제본기」(五帝本紀)기록되어 있다. 중원지역에서의 염제(炎帝)는 강성부락(羌姓部落)의 수령이었고, 황제(黃帝)는 희성부락(姬姓部落)의 수령이었다. 그러나 염제와 황제와의 전쟁이후 황제가 중원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기는 했지만, 그 전쟁을 계기로, 염제로부터 “화”(華)자가 취해지고 황제로부터 “하”(夏)자가 취해져 염황합족(炎黃合族) 정책에 근거해 화하족(華夏族)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나왔던 것이다.

1940년대 초에 중국의 저명한 인문사학자 런나이창(任乃強) 교수는 화하(華夏)고인류는 티베트고원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도 중국인의 선조가 서방의 오랑캐 족을 가리키는 저강족(氐羌族)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경우 강‘羌’과 ‘姜’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羌’은 부계 중심사회 출신의 강을 가리키고, ‘姜’은 모계 중심사회 출신의 강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황제(黃帝)는 모계중심사회를

13) 이춘식(1987) 『중국고대사의 전개』, 문예출판사, p.25

부계중심사회로 전환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는 쿠룬산맥 일대의 티베트고원 지역을 치정해가다가 그곳에서 황하 상중류로 진출해나갔던 자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산싱두이의 유물 제작의 주역이 인도로부터 서남실크로드를 타고 윈난(云南)을 경유해 사천분지로 들어온 민족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에서 티베트고원 길을 타고 사천분지로 들어온 유목민의 후예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원로는 신석기문화·청동기 문화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신석기문화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의 농경과 목축을 주축으로 해서 형성되어 나왔고, 청동기 문화란 신석기 문화를 기초를 해서 성립되어 나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생활을 해가던 인류가 한곳에 정착해 농경과 목축을 행하게 되는 지역은 강 유역 뿐만은 아니었다. 강유역의 경우처럼 식물재배에 적합한 물이 저수되어 있는 호수가 있고 가축방목에 필요한 초원이 있는 고원 지역도 인류가 정착해 살기에 적합했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현재 학자들은 청동기의 기원을 「동과 주석연료가 풍부한 아르메니아와 코카서스 및 이란고원을 연결하는 산악지대」로 파악하고 있다.¹⁴⁾ 그 지역은 청동기 문명이 제일 빠른 지역으로 파악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청동기 야금술의 발명은 기원전 4000~3500년경에 이루어 졌다. 그것이 고대 이집트 지역으로는 기원전 3500년경에, 고대 인도쪽으로는 기원전 3250~2750년에 각각 전파되어 나갔다. 또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서북쪽 소아시아지역 동북쪽의 알타이지역(아파나시예보 문화), 동남쪽 이란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는 기원전 3000년경에 각각 전파되어 나갔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국 동북지방과 중원지역으로는 청동기 문화의 전파는 아르메니아고원(기원전 4000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기원전 3000년경), 카자흐고원(기원전 2500년경), 아랍선(阿拉善)고원(기원전 2300년경), 오르도스고원(기원전 2100~1400년경), 황토고원(기원전 2000년경) 등을 통해 전파되어 나왔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러나 장강문명의 발원지로 고찰되는 청두의 산싱두이 청동기 문화의 경우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기원전 3000년경)으로부터 시작해 티베트고원(기원전 2500년경), 천서고원(기원전 2000년경)을 통해 기원전 2000년경에 청두에 전파되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남 실크로드를 타고 버마 쪽으로부터 중국의 서남지역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한 윈난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유적지로 알려진 쟈환 하이먼커우(劍川海門口)는 기원전 1000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청두(成都)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북방의 오르도스

14)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출판사. p.130

고원으로부터 동아시아의 고원로를 타고 황토고원·천서고원을 경유해 성도분지로 전파되어 내려왔다는가, 혹은 윈난(云南)지역으로부터 서남실크로를 타고 청두(成都)지역으로 전파되어 올라갔던 것이 아니고, 티베트고원으로부터 고원로를 타고 천서고원을 경유해 성도분지로 전파되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5. 고원로와 고대중국의 문화와 민족의 형성

우리가 실크로드의 한 간선으로서의 고원로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는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동서문화의 교류, 중국대륙에서의 한민족의 형성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지금까지 보다는 한층 더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고원로의 존재 인정의 입장을 취해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중국 채도문화의 서방전래설의 문제부터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에서 티베트고원을 경유해 쓰촨(四川)의 청두(成都)에 이르는 동서 고원로와 몽골고원에서 윈난(云南)의 운귀고원에 이르는 동아시아 남북고원로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채도문화의 서방전래설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채도문화의 연구자들은 예컨대 북이라크의 자모르문화로부터 발굴된 것이 기원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라크의 우바이드 채도의 제작연대가 기원전 4250경까지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¹⁵⁾ 채도문화의 기원을 서남아시아로 보고 있고, 그 채도문화의 연대를 기원전의 7000~2500년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그 채도문화가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국의 중원지방에 전래된 것으로 생각해왔고, 중국의 채도연대를 기원전의 3500~500년까지로 보고 있다. 또 그들은 채문토기가 1921년 스웨덴의 고고학자 앤더슨(J.G Andersen)에 의해 허난성(河南省)의 양사오촌(仰韶村)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유물들의 유적지로부터 최초로 발견됨에 따라 양사오(仰韶)지역의 문화를 채도문화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중국의 서방문화로 간주되어 왔던 간쑤성(甘肅省)유적지들로부터 채문토기들이 발굴되었는데, 그 발굴된 채도들의 제작연대가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것들 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채도문화 연구자들은 채도문화의 서방전래설을 부정하고 채도문화가 중국에서 서아시아로 전파되어 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⁶⁾ 이 채도의 전파설에 관련해 정수일은 “우선 편년상

15) 상동서, p.104

16) 이춘식(1987) 『중국고대사의 전개』, 문예출판사, p.22

에서 중국의 채도문화는 서아시아의 채도문화보다 약 2000~3000년후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것이 서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그는 “채도는 서아시아로부터 타림분지에 파급된후 오아시스를 따라 간쑤(甘肅)·허난(河南)지대에 전해졌다는 것이 일본의 마스다 세이이치(増田精一)를 비롯한 ‘중국 채도 서아시아 전래설’주장자들의 주장이라는 견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입장들에 대해서 논자는 중국의 중원지역에서 발굴된 채도가 간쑤성을 통해서 유입된 것이 아니고 동서의 티베트의 고원로를 통해서 일찌감치 중국으로 들어와 중원지역으로 전파되어 나왔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간단히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남실크로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보겠다. 1990년대로 들어와 청두(成都)의 산싱두이 유물들의 제작자 규명 작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실크로드 연구자들은 쓰촨성(四川省)의 청두(成都)로부터 윈난(云南)·버마를 경유해 인도에 이르는 서남실크로드의 존재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들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서남실크로드의 개통은 기원전 4세기말이다. 진이 지금의 쓰촨(四川)지방에 강족계(羌族係)의 일파에 의해 건립되어 있었던 고촉국을 무너트리자 그 고촉국의 잔여세력들이 쓰촨(四川)지역의 동남지역인 윈난(云南)의 동북부에 위치하는 보다오(犍道)지방으로 도망쳐 남하해 갔다. 그들의 그러한 집단적 이주과정에서 쓰촨(四川)의 청두(成都)로부터 윈난(云南)의 쿤밍(昆明)까지의 서남실크로드의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들에 의해 현재의 윈난(云南)동북부 내지 월남의 북부지역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쿤밍(昆明)지역에 윈랑국(文郎国)이 세워졌다. 우리는 그 윈랑국(文郎国)을 건립한 인간들을 북족(犍族: “犍”은 “백”(白)와 음이 동일. “犍”은 이족(夷族) 중에서 ‘文明’, ‘進歩’ 등을 뜻하는 ‘仁’을 가장 숭상하는 족속이라 하여 취해진 것이라 한다.)이라 부르고 또 그들이 쓰촨(四川)으로부터 남하하여 월남의 북부에서 취집(聚集)하게 된 지역 내지 그곳에 이르는 길을 보다오(犍道)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길의 폭이 오척(五尺)이라 해서 그 길을 오척도(五尺道)라고도 부르고 있다. 기원전 2세기에 와서 한 무제가 서북실크로드를 개통시킨 장건을 파견해 그로 하여금 청두(成都)로부터 버마를 경유해 인도에 이르는 서남실크로드를 개통시켜 보도록 명했으나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동남아시아·인도를 연결시키는 그 길은 이미 무명의 그 각 지역들의 상인들에 의해 상도(商道)로 개통되어 있었고, 한 무제 이후 한 제국의 황제들과 삼국시대의 촉한국(蜀漢国)이 줄곧 그 길의 정비를 노력해 갔던 것이다.

그들 중의 한 사람 거아간(戈阿干, 창아건)은 산싱두이 유물들이 인도 등의

17)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출판사, p.114

남아시아, 이집트·아나톨리아·메소포타미아 등과 같은 서아시아지역과의 문화적 교류의 결과로 형성되어 나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의 그러한 주장은 그러한 문화적 교류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유사 이래 존재해 왔었다고 추정되는 서남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 이 경우 그는 그 사천지역의 산성두이 유물들의 모양들과 그것들 속에 새겨진 문양들, 혹은 쓰촨(四川)지역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윈난(雲南)지역의 고대무덤 등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그러한 것들이 남아시아나 혹은 서아시아의 그것들과 유사하다는 점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과의 영향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들과 관련해서 논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남아시아나 서아시아 등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산성두이 유물 등이 형성되어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쓰촨(四川)이나 윈난(雲南)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청두(成都)에서 윈난(雲南)·버마를 통해 인도에 이르는 서남실크로드를 통해서만 서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그들의 그러한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서남실크로드를 통해서 그것들이 서역의 것들로부터의 영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 길만을 통해 서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는 논자로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논자는 그 서남실크로드 보다는 오히려 논자가 앞에서 제시한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과 티베트고원 지역을 연결하는 고원로를 통해 서남지역에 유입된 서역문화로부터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아간(戈阿干)은 서남실크로드의 존재와 관련해서 중국내에서의 서남실크로드가 쓰촨(四川)의 청두(成都)에서 남쪽으로는 윈난(雲南)의 쿤밍(昆明)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는 나사에 이르며, 북쪽으로는 서안에 이르는 길, 즉 진정한 의미의 차마고도(茶馬古道)라고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논자가 앞에서 제시한 동서의 고원로는 두개가 있다.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으로부터 동쪽의 카라콜룸산맥을 통해 티베트고원으로 들어가 그 북쪽의 쿨룬산맥을 통해 칭하이성(青海省)·간쑤성(甘肅省)을 경유해서 동아시아의 남북 고원로에 이르는 동서 북로가 있고, 그 남쪽의 히말라야산맥을 통해 나사를 경유해 청두(成都)에 이르는 동서 남로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청두(成都)에서 나사에 이르는 차마고도는 남북고원로의 남로의 일부에 해당되고, 윈난(雲南)에서 청두(成都)를 통해 서안에 이르는 차마고도는 윈난(雲南)에서 몽골지역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남북고원로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여기에서 논자는 청두(成都)에서 나사를 통해 히말라야산맥을 가로질러 네팔로 들어가 인도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도 말해두고 싶다. 중국의 서남실크로드 연구자들은 이 길을 서남실크로드에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한무제는 건원년간(建元年間, 140~135, BC)에 흉노 토벌군으로 장건을 중앙 아시아의 대월지국(大月氏國)에 파견한다. 장건은 그 나라를 비롯하여 그 인접국인 대하국(大夏國) 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대하국에서 쓰촨(四川)지역의 대나무지팡이와 옷감 등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 장사꾼에게 그것들을 어디에서 구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마을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사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대하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인도가 중국 서남의 쓰촨(四川)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한나라로 돌아와 무제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가 대하로 사신을 보낸다면 그는 강족의 영토를 지나가야 하는데 강족이 싫어할 것이고 또 지세도 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흉노에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남지역의 축에서 가게 되면 길도 가깝고 도둑도 없을 것입니다.”¹⁸⁾ 무제는 대하국이 한나라와 산업이 비슷하고 진귀한 물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장건으로 하여금 중국의 서남지방의 축으로 내려가 대하로 가는 길을 찾도록 했다. 그래서 그는 축지방에 내려가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려 했으나 한나라와 문화교류가 없는 각국들에 막혀 결국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해내지 못했다. 그 결과 한무제때 서남실크로드가 존재했었다하더라도 사실상 문화교류의 통로로서는 그렇다할 역할을 해가지 못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서남지역과 인도와의 문화교류가 행해졌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동서 고원로의 남로의 한 지류라 할 수 있는 길, 즉 청두(成都)로부터 라사를 경유해 히말라야산맥을 가로질러 네팔을 거쳐 인도로 들어가는 길을 통해 행해졌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서남지역의 소수민족의 기원의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쓰촨(四川)·윈난(雲南)을 중심으로 한 서남지역에 쟁족(藏族), 이족(彝族), 나씨족(納西族), 바이족(白族) 등과 같은 적지 않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소수민족들의 민족적 기원을 규명해내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입장들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이들의 소수민족들이 한족에 동화 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어쩌서 그 소수민족들의 거주지가 서남지역에 군집되어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논자는 이 두 문제에 대한 입장 제시를 통해 그들의 민족적 기원의 문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서남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설혹 자신들의 언어문화나 복장문화 등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형제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이 같은 고강족(古羌族)이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언어가 구문론적 측면에서

18) 사마천 『사기7-- 열전 하』, 정범진 역, 1995, p.1064

서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즉, 한족의 언어가 SVO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그들의 언어는 SOV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취해가는 이유는 우선 그들의 언어구조가 한족과 다르고 또 자신들의 문화 수준이 한족 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해왔었고, 또 자신들의 선조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거주지는 우선 티베트 고원의 남부를 가로지르는 고원 남로와 그 고원의 북부를 가로지르는 고원 북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 지점은 동서의 고원로와 남북의 고원로의 교차 지점이기도 하다. 그 지점은 서방으로부터 동방으로 이동해 온 민족들의 마지막 정착지이기도 하고, 또 북방족이 남북의 고원로를 타고 남하해 정착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시대(戰國時代, 403~221)에 진(秦)이 위치해 있던 곳은 티베트고원의 북로와 남로가 만나는 지역이었다. 진은 기원전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진이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진이 위치해 있던 지역이 서역으로부터 새로운 물문이 들어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무제 이후 장건이 고원북로에 위치한 둔황으로부터 하미, 투르판, 천산산맥 등을 통해 파미르고원에 이르는 길을 열게 됨으로써 파미르고원에서 출발해 티베트고원을 경유해 주원지역에 이르는 길은 거의 이용되지 않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논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시킨 후 북쪽으로부터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장성을 구축하자, 북방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흉노족, 동이족, 강족 등이 당시 진의 국경을 이루었던 남북 고원로를 따라 남하해 서남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대륙에서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종교를 주축으로 한 동일한 문화집단이 형성되어 나온 것은 기원전 70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석기 시대 이후로 추정된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기원전 5000~2500년경에 허난성(河南省)에 위치해 있는 양사오촌(仰韶村)의 채도문화 등을 주축으로 형성되었던 양사오문화이다. 이 신석기 문화를 일으킨 양사오인의 유골은 남중국인계통의 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¹⁹⁾. 이것은 장건 이후에 뚫린 중앙실크로드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초원로를 통해 들어온 서방 인종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화북인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만일 양사오인들의 선조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서역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동서 고원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방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신화 상의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최초의 국가라 할 수 있는 하

19) 이춘식 『중국고대사의 전개』, 예문출판사, 1987. p.19

(夏)왕조가 설립된것은 『상서』(尚書) 등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050~1550년경으로 파악되고, 그 판도는 산시성(山西省)남부, 허난성(河南省)과 산시성(陝西省)의 서변 일대, 즉 중원지방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고대사에서의 하왕조 이전은 개국신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신화전설시대로 기술되어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삼황 중의 수인씨(燧人氏)는 불 만드는 기술을, 복희씨(伏羲氏)는 사냥기술을, 신농씨(神農氏)는 농경술을 각각 창안한 자들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불과 사냥 등의 기술적 창안은 구석기 시대에 행해진 것들이고, 농경술의 창안은 신석기시대로 들어와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는 중국에서의 삼황시대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초기에 해당되는 시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삼황중의 수인씨와 복희씨의 시대는 구석기시대이고 신농씨의 시대는 청동기가 사용되기 이전의 신석기시대이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는 양사오 문화(仰韶文化, 5000~2500,BC)와 룡산 문화(龍山文化,2300~1800,BC)는 신농씨 시대에 형성되어 나온 문화로 파악된다. 그런데, 양사오 문화는 황하의 상중류지역에서 출현했고, 룡산 문화는 그것의 중하류지역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신석기문화의 관계에 대해 여러 설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논자의 기본적 입장은 양사오 문화는 동서의 고원로를 통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룡산 문화의 경우는 동아시아의 남북고원로를 통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어 나왔다는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제(五帝)중의 최초의 인물 황제(黃帝)는 무력으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 시키고 문자, 역법 등의 물문제도를 창안해낸 최초의 군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는 중국에서 청동기가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된 시점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문화가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에서 동서 고원로를 통해 티베트고원으로 전파된 것은 기원전 2500년경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하왕조가 출현한 중원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갔던 것은 아마도 하왕조의 건립 시점(기원전 2050년경) 전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오제의 첫 번째 황제(皇帝)인 황제(黃帝)가 쿤룬산맥을 주축으로 한 티베트고원의 인근 지역을 다스려가다가 삼황의 마지막 제황(帝皇)인 신농씨 염제가 점유하고 있던 중원지역으로 나가서 신농씨 염제를 제압한 다음 그와 부족연맹의 형태를 취해 그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이 중원지역을 지배해가게 되는데, 우리에게서의 그 시기는 황제가 쿤룬산맥지역에서 황하중상류 지역으로 진출한 시점에서부터 하왕조의 설립시점이전으로 파악된다. 삼황오제(三皇 五帝)시대란 삼황과 오제에 의해 정치가 행해지던 시대를 가리키는데, 이 경우 삼황에 의해 정치가 행해지던 기간이 수 천년간이 었다는점을 감안해

본다면 ‘삼황오제시대’란 말은 ‘삼황’과 ‘오제시대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하왕조의 건립은 황제(黃帝)이후의 네 황제들, 전욱(顓頊)·제곡(帝嚳) 등을 비롯한 요(堯)·순(舜)의 치정기 이후의 일이었는데, 그 건립기반은 염제의 강씨부락과 황제의 희씨부락 출신의 화하족(華夏族)이었던 것이다.

하왕조의 설립은 순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우(禹)가 그 왕위를 다른 현자(賢者)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의 아들 계(啓)에게 물려줌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왕조는 그 후 1550년까지 470여년간 지속되어 갔었는데, 기원전 1766년경에 황제보다 먼저 티베트고원에서 중원지역으로 진출해, 하왕조가 건립되어 있던 지점보다 아래 지역인 허난성(河南省)지역을 발판으로 해서 신농씨 계열의 민족이 상왕조(商王朝, 1766~1122, BC)를 건립하여 결국 기원전 1550년에 가서는 하왕조를 무너뜨리고 만다. 그러나 상왕조도 기원전 1122년에 와서는 티베트고원의 북로의 관문에 위치해 있는 산시성(陝西省) 지역에서 출현한 서주(西周, 1122~770, BC)에 의해 멸망하였다. 서주의 건립자는 허우지(后稷)인데, 성은 황제(黃帝)와 동일한 희(姬)이다. 이렇게 봤을 때, 서남의 소수민족들의 조상은 중원지방에서 형성되어 나온 화하족의 후손들이 아니고 화하족이 형성되어 나오기 이전 염제 화족을 지칭하는 강씨로부터 분파되어 나온 족속들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자들로 파악된다. 현재 중국민족의 중핵을 이루는 한족(漢族)은 하(夏)·상(商)·주(周)의 지배계층을 주축으로 해서 형성되어 나온 민족이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기본적 구문인 SVO형은 어떻게 형성되어 나온 것인가?

희씨(姬氏)부락의 수령이었던 황제(黃帝)가 중원지역에 진출하기 이전 그가 치정했던 곳은 쿤룬산맥을 중심으로 한 티베트 고원지대였었다. 그런데 티베트 지역은 S OV형의 문법구조를 취하는 장족어(藏族語)가 사용되는 지역이었다. 현재 서남지역의 소수민족들의 선조들도 티베트고원에서 중원으로 진출해나갔던 강족(古羌族)의 선조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그들도 SOV형의 문법구조를 취하는 언어를 구사했었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한다. 그렇다면 중원지역에서의 강족 부락의 수령이었던 신농씨 염제도 강족 SOV형의 문법구조의 언어를 구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하왕조의 건립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희씨성(姬氏姓) 부락의 수령이었던 황제(黃帝)의 후손들, 예컨대, 우(禹)·순(舜)·요(堯) 등도 SVO의 문법구조를 취하는 언어를 구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그 희씨성의 인간 집단은 어디로부터 티베트고원에 출현한 것인가? 이것은 기원전 2000년대에 서아시아에서의 SVO의 문법구조를 취하는 언어를 구사하게 된 종족의 출현과 관련시켜 논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6. 맺으며

이상과 같이 논자는 우선 실�크로드의 세간선의 성립시기와 그 지리적 위치를 점검했다. 기존의 실크로 학자들은 중앙의 오아시스로의 성립시기를 고대의 말기로 보고, 북방의 초원로와 남방의 해로의 그것을 구석기시대로 파악했다. 그러나 논자는 오아시스로도 북방과 남방의 그것들과 같은 시기에 성립되어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 했다. 논자는 실�크로드의 기초를 이루는 중앙의 오아시스로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했다. 그 결과 논자는 그 길이 고대말 이전의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는 각 지역의 고원들을 잇는 길들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경우 중앙 오아시스를 연결시켰던 것들은 아나톨리아고원, 카프카스 고원, 아르메니아고원, 이란고원, 파미르고원, 카자흐고원, 아랍선고원, 몽골고원, 오르도스고원, 황토고원 등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원들 외에도 중국대륙에는 아리고원, 티베트고원, 천서고원, 운귀고원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사이에 어느 시점까지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으로부터 티베트고원을 경유해 중원의 황토고원 혹은 서남의 운귀고원 지역에 이르는 고원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사실상 중국 대륙에서 정치적 무대의 중심지를 중원지역으로 해서 성립된 진(秦)·한(漢) 제국이 성립되어 나옴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으로부터 타크라마칸 사막의 북변에 위치해 있는 천산산맥을 통해 중원지역으로 이어진 중앙의 실�크로드가 비로서 성립되어 나왔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아시아의 중국대륙에서 진(秦)·한(漢) 제국의 성립되기 이전 정치적 중심지가 분산되어 있었을 당시에는 서아시아인과 그들의 물문이 파미르고원으로부터 티베트고원의 북로 또는 남로를 경유해 중원지역 또는 사천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갔었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이렇게 중앙실�크로드가 형성되어 나오기 이전에 서아시아의 아나톨리아고원으로부터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과 티베트고원을 경유해 중원의 황토고원이 나 혹은 서남의 천서고원에 이르는 동서고원로가 있었고, 또 중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자흐고원에서 파미르고원과 이란고원을 경유해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남북고원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에서는 몽골고원에서 오르도스고원·황토고원·천서고원을 경유해 운귀고원에 이르는 동아시아 남북고원로도 있어, 그것들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동서문화의 교류와 남북문의 교류가 행해졌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역사적 연구대상들을 재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우선 논자는 동서의 고원로과 관련시켜, 20여년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부근의 산싱두이로부터 출토된 청동기 유물들이 어떤 집단들에 의해 제작되었는지를 고찰했다. 그 결과 우리는 그것들이 동서 고원로를 통해 서남지역에 전래된 서아시아의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출현된 것들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 논자는 고원로와 관련시켜 고대중국의 민족과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나왔는지의 문제를 고찰했다. 고대중국의 민족과 문화는 서아시아인과 그들의 문화가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으로부터 티베트고원의 북로 또는 남로를 통해 중원지역과 사천지역에 유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티베트, 중원, 쓰촨(四川) 등의 지역의 토착인과 그 지역의 토착문화와 융합해 형성되어 나온 것으로 고찰된다.

이 경우 서아시아에서 파미르고원을 통해 티베트고원의 북로를 타고 쿤룬산맥 자락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정착해 살다가 중원지역으로 나간 민족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화하족(華夏族)이라 말하고 있고, 그들이 중국민족의 중핵을 이룬다는 입장을 취한다. 화하족이란 말은 기원전 20세기경에 중원지역에서의 하(夏)의 민족적 성립기반을 말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하(夏)가 강씨(羌氏)성(姓)의 염제(炎帝)를 수령으로 했던 부락과 희씨(姬氏)성(姓)의 황제(黃帝)를 수령으로 했던 부락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화하족의 대립되는 용어는 이족(夷族)이었다. 화하족과 같이 동아시아지역의 중원에 살지만 화하족이 아닌 민족을 동이족(東夷族)이라 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의 민족은 한족(漢族)을 주축으로 형성된 민족이고, 그 한족은 하(夏)·상(商)·주(周)·진(秦)의 지배층을 주축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민족과 문화의 기초를 형성시켜나온 중국인의 언어와 관련하여 논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현재 한족에 대립되는 '소수민족'의 대다수는 SOV형의 언어를 쓰고 있고, 한족의 경우는 SVO형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화하족과 이족과의 구별은 서아시아로부터의 SVO형의 언어를 구사하는 민족이 SOV형의 언어가 구사되는 티베트지역에 도착해 중원지역으로 진출해 나가게 됨으로써 행해지게 된 것이라는 입장도 취해지게 되는 것이다.

【参考文献】

- 국제한국학회(1999) 『실크 로드와 한국 문화』, 소나무.
- 민병훈(2005) 『초원과 오아시스 문화 중앙아시아』, 통천문화사.
- 나가사와 가즈토시·저 민병훈 역(1993) 『東西文化의 交流』, 민족문화사. p.14-27
- 사재동(2001) 『실크로드와 韓國文化의 探究』, 중앙인문사.
-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세계절출판사. p.63 p.114 p.130
- 司馬遷·著 丁範鎭 譯(1995) 『史記列傳 下』, 도서출판까치. p.1064
- 曹剛(1999) 『中国西藏地方货币』, 四川民族出版社.
- 戈阿干(2006) 『絲路文明与东巴文化』, 中国文史出版社. p.8-13
- 霍巍·李永宪(2004) 『西藏考古与艺术』, 四川人民出版社. p.12
- 李春植(1991) 『中國史 序說』, 교보문고. p.22-25
- 杨福泉(2005) 『纳西族与藏族历史关系研究』, 民族出版社.
- 琼那·诺布旺典(2007) 『唐卡中的西藏史』, 陕西师范大学出版社. p.18-30
- Zhang Xiaoming(2004) *Tibetan Stories*, China intercontinental Press, p.16

要 旨

まず論者はシルクロードの三つの幹線の成立時期とその地理的位置を検討した。既存のシルクロード学者たちは中央のオアシス路の成立時期を古代末期と見なし、北方の草原路と南方の海路を旧石器時代のものだと判断した。だが、論者はオアシス路も北方と南方のルートと同じ時期に成立したという立場を提示した。論者はシルクロードの基礎とされる中央オアシス路の地理的位置を把握した。その結果、論者はそのルートが古代末以前の青銅器時代と鉄器時代には各地域の高原をつなぐ道に基づいて成立したという立場をとることになった。

また論者は東西の高原路に関し、約20年以上論議の対象になってきた四川省成都付近の三星堆から出土された青銅器の遺物がどのような集団によって作られたのかを考察した。その結果、それらが東西高原路を通じて西南地域に伝わった西アジアの青銅器文化を背景として出現したものだという立場をとった。そして本稿では高原路と関連し、古代中国の民族と文化がどのように形成されてきたのかについて考察した。古代中国の民族と文化は西アジア人とかれらの文化が中央アジアのパミール高原からチベット高原の北または南ルートを通じて中原地域と四川地域へ流入してゆく過程でチベット、中原、四川等の地域の土着人とその地域の土着文化と融合し、形成されたものと思われる。

最後に中国の民族と文化の基礎を形成した中国人の言語に関し、論者は次のような立場を提示している。現在、漢族と対立する「少数民族」の大多数はSOV型の言語を使い、漢族はSVO型の言語を使っている。この事実から、華夏族と夷族との区別は西アジアからのSVO型の言語を駆使する民族がSOV型の言語が駆使されるチベットの着き、中原地域へと進出してゆく過程で行われたという立場をと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シルクロード、オアシス路、東西高原路、三星堆、SVO型言語、SOV型言語、華夏族、夷族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